

# 고통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세요...광주·전남 애도 발길

### 무안공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공항 밖까지 조문 행렬 광주 분향소에도 아이들 손 잡은 가족 단위 추모객들 북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일째이자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5·18민주광장의 합동분향소에는 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민들은 새해 해맞이 대신 무안국제공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로 발길을 돌렸다. 광주에서는 분향소 설치 이후 1만명이 훌쩍 넘는 추모객이 다녀갔다.

추모객들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참사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추모객들이 물리면서 공항 밖까지 추모대가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 1시간이 넘게 기다려야 했음에도 추모객들은 자신의 차레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한 추모객은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멍하니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뿜고 목베었다. 희생자 대다수가 광주·전남 지역민인 만큼 지역에서는 추모객이 많았다. 승무원을 제외한 여객기 탑승자 175명 중 전남도민 75명, 광주시민 83명이다.

정성원(33)씨는 "지난 29일 참사 때부터 무거운 마음을 털어낼 수 없었다"며 "가장 아프고 슬픈 새해를 보낼 유족들과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광주에서 달려왔다"고 말했다.

목포에서 온 조승현(46)씨는 "새해를 맞았지만 기쁜 마음보다 여객기 참사가 가장 생각났다"며 "영원하신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기쁘게 돌아가시길 바라며, 유가족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온 김기모(69)씨도 "새해 첫날이라 가족끼리 해돋이를 보러 가자는 말이 나왔지만 슬픈 마음에 조문을 왔다"며 "벽에 붙은 영정사진을 보다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희생자들이 영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에서 빛진 비극적인 참사에 서울에서 무안

을 찾은 이도 있었다.

장윤주(여·38)씨는 "고향이 전남이어서 '희생자가 내 이웃이었을 수 있다'는 마음에 급하게 내려왔다"며 "공항에서 가족을 기다리며 새해 첫날을 보내는 유가족분들을 안아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슬퍼했다.

자녀 등 가족 5명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은 정광호(51)씨는 "아이들이 용돈으로 과자 등 유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식품을 샀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밝혔다.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께 민주광장에는 2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국화꽃을 손에 쥐고 침통한 표정으로 추모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쌀쌀한 날씨에 대기시간이 수십분이 걸렸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박술문(16·북구 삼각동)군은 10년 간 자신을 진료해 준 치과의사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분향소에 들었다. 박군은 "과잉진료 없이 친절하게 치료하시기 위해 유명하신 분이였다. 올해 여름을 마지막으로 다 음달 진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더는 선생님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고개를 떨었다.

화순에서 찾아온 김씨 자매도 있었다. 김예린(여·13), 양과 김주원(11)군은 "뉴스를 보며 어린 친구들도 희생됐다는 소식을 듣고 추모하기 위해 엄마 차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총 1만 1447명의 추모객이(30일 2463명, 31일 5605명, 1일 3379명)이 다녀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추모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L명주 기자 mjna@

## “유가족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 무안공항에 자원봉사 발길 이어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무안국제공항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과 시민들의 십시일반 정성이 이어졌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양말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했고 하루 빨리 참사가 수습되길 바란다며 조심스럽게 염원했다.

김건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농성빛어울림재단사회복지관장은 "참사를 뉴스로 접하고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이었다. 희생자가 나 현재, 내 가족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지난 30일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와있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참사를 접하고 발 빠르게 달려온 개인 봉사자들도 많았다.

전북 정읍에서 온 강순호(45)씨는 "여러 매체로 참사를 접하고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유가족분들께서 봉사자들을 향해 선한 눈빛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식당 한국관을 운영 중인 정주아 대표는 "참사 다음 날인 지난 30일부터 3일째 식사를 준비해서 오고 있다. 뉴스만 보고 유가족들에게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매일 300~400인분의 쿤나물죽, 호박죽, 곰탕, 순두부찌개, 전복죽 등 상심이 큰 유족들이 간

단히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무안을 찾은 박미희(여·58)씨는 "사고 소식을 접한 순간 국민이라면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31일부터 배식 봉사 중인데 새해라는 개념을 잊었다. 유가족분들의 통곡이 들릴 때마다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는 고슬비(여·32)씨는 SNS에 봉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글을 보자마자 무안으로 달려왔다. 자원봉사가 처음임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 있다.

고씨는 "이런 참사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했다. 유족분들을 직접 보며 봉사하니까 담담해 보이는 얼굴에도 슬픔이 보여서 마음이 무너진다"며 눈물을 흘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의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어제 무안공항에 필요하다고 글 올려 주셔서 여성 200컬레, 남성 200컬레 양말을 발급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가 없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도움을 구할 수 있었지 하여 글 올립니다. 충성사에서 이동 예정인데요. 혹시 같이 양말 옮길 도움 주실 선생님 계시면 연락부탁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국토부의 거짓말?

### 안전구역 밖이라던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 안전 구역 내 설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핵심 시설인 '로컬라이저'(착륙유도시설,둔덕)가 국토부 규정상 안전구역내 설비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안전 구역 밖에 설치돼 '문제없다'고 밝혔던 입장과 상반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중완 환경공정책임실 주재로 진행된 제주항공참사 관련 бри핑에서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둔덕은 20여년 전 무안공항 설계 당시부터 적용됐는데, 당시 설계와 시공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발주로 1999년부터 금호건설 컨소시엄에서 맡았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말 30~31일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무안공항의 안전구역은 활주로 끝에서 259m까지로 로컬라이저는 이보다 5m 후방에 설치됐다는 점에서도.

하지만 국토부가 고신한 '공항·비행장시설이 착륙장 설치기준' 상에는 정밀 접근 활주로로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이 규정에 따르면 안전구역은 264m가 되는 셈이다.

결국 국토부는 안전구역 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가 아닌 둔덕에 콘크리트 설비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의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자료 추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에는 2일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이지만, 녹음 파일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녹음파일이 조사 진행중인 상태에서 공개하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사고기의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는 파손이 된 탓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협조를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옮겨 분석하길 했다.

데이터 분석 시간과 관련, "데이터의 상태나 양을 봐야 추정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hh@kwangju.co.kr

## GGM 노조 파업 찬성...단체행동 불가피

광주글로벌모터스(GGM)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 조율된 88.9%가 파업에 찬성했다.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단체행동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노조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25명 중 찬성 200명(88.9%), 반대 25명(11.1%)로 가결됐다.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철화했던

지난 10월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 찬성률 85.9%보다 높게 나온 것"이라며 "력려금 차별 지급 결정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회사와 주주단이 노골적으로 노동3권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새해에 간부회의를 통해 쟁의행위 일정과 세부방침을 정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개> \*QR코드는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3타경 9472	3	정성근 삼계면 수산리 253-3 21㎡ [현황:도로,답]	대	67,200	67,200	지분매각,공유자우 선매수권 1회 제한, 대부부도로
2024타경 61262	4	정성근 삼계면 수산리 253-4 119㎡ [현황:축사건부지,오병목 1/2지분전부]	대	952,000	952,000	지분매각,공유자우 선매수권 1회 제한, 맹지,제시와건물제외
2024타경 70181 [병합]	1	북구 용두동 513-2 45㎡	대	57,150,000	57,150,000	일부도로
2024타경 724	3	화순군 화순읍 이삼곡리 442-1 2526㎡ [공유자송이순,송태평,송경자,송수자,고영자,송경아,송선아,송신아,송재식각495/1155,송이순,송태평,송경자,송수자각99/1155,고영자27/1155,송경아,송신아,송재식18/1155각지분전부]	대	54,128,500	54,128,500	지분매각,공유자우 선매수권 1회 제한, 제시와수목제외,별지시서상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4타경 60290	1	나주시 동강면 곡전리 955-2 608㎡ [농지취득자격증명요,제시와수목[소나무등]제외]	대	24,320,000	24,320,000	정확한경계확인측량요,지목답,현황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3타경 9472	1	광산구 월곡동 561-8 184.8㎡	대	407,093,770	407,093,770	일괄매각,제시와건물포함 2-나공부상변소로통제,현황창고,후행사건24타경 70181감정포함
2024타경 61262	2	정성근 삼계면 수산리 253-1 997㎡	대	185,529,800	185,529,800	일괄매각,제시와-정성근 삼계면 자초로 276-48 단층 82.34㎡ 부속건물 단층 21㎡ 제1호 가옥등 117.6㎡ [물건번호2:제시와건물포함,지상수목및석축소재]
[아파트]						
2023타경 83968	1	북구 유림로175, 110동 8층 601호 [동림동,삼인] 59.97㎡	아파트	134,000,000	134,000,000	2024타경76578 [중복]
2024타경 3501	1	북구 설죽로595, 107동 13층 1302호 [일곡동,일곡롯데아파트] 138.700㎡	아파트	627,000,000	627,000,000	현황조사서상기준 관리비830,400원 미납상태
2024타경 69006	1	북구 용두동 330, 308-5, 309-3 양산타운아파트 제102동 제3층 제305호 59.715㎡	아파트	190,000,000	190,000,000	[중복]
2024타경 69143	1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60-5, 제14층 제1416호 [월계동,무등에코플러스] 19.9836㎡	아파트	53,000,000	53,000,000	
2024타경 69259	1	남구 노대실로33, 제502동 제8층 제802호 [노대동,송하마을휴먼시아] 84.88㎡	아파트	291,000,000	291,000,000	현황조사서상관리비미납전상태
2024타경 69631	1	남구 용대로180-8, 제101동 제102동 제20층 제2008호 [방림동,글로벌하이] 124.29㎡	아파트	294,000,000	294,000,000	
2024타경 69945	1	남구 대남대로159번길7, 제2동 제5층 제503호 49.53㎡	아파트	129,000,000	129,000,000	
2024타경 70068	1	북구 양산택지소20, 제106동 제5층 제501호 [본촌동,양산지구현제비발] 158.90㎡	아파트	649,000,000	649,000,000	
2024타경 71498	1	북구 서강로54번길50, 제204동 제5층 제502호 [운암동,백산블루밍메가캐시] 152.796㎡	아파트	604,000,000	604,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기타]						
2023타경 82200	1	정성근 동화면 송계리 274 66㎡ [임정근1/10지분전부,지상토지상소나무와배롱나무,철쭉등수목포함]	대	468,600	468,600	지분매각,공유자우 선매수권 1회 제한, 맹지
	2	정성근 동화면 송계리 276-1 331㎡ [임정근1/10지분전부,지상토지상소나무와배롱나무,철쭉등수목포함]	대	2,250,800	2,250,800	지분매각,공유자우 선매수권 1회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정성근 동화면 송계리 263 671㎡ [현황:일부도로] [임정근1/10지분전부,지상토지상소나무와배롱나무,철쭉등수목제외,공부상지목전,일부인접지포함로사용중인도로]	대	3,019,500	3,019,500	지분매각,공유자우 선매수권 1회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4타경 724	2	북구 용두동 538-2 60㎡	도로	22,620,000	22,620,000	도로
		정성근 삼서면 두월리 916-5 1734㎡ [공정지당법제6조특별복지기제와갈을 제시와 기계기구 11식]	공정용지	1,379,973,400	1,379,973,400	일괄매각,제시와건물포함,공정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
		정성근 삼서면 영로동 1930-29 [주식회사하양창호2공장] 단층 441.37㎡ [공정지당법제6조특별복지기제와갈을 제시와 기구 120㎡]	공장			
2024타경 2553	1	정성근 삼서면 두월리 876-14 124㎡ [공정지당법제6조특별복지기제와갈을 제시와 기구 120㎡]	공정용지			
		동소 916-7 2040㎡ [공정지당법제6조특별복지기제와갈을 제시와 기구 111㎡]	공정용지			
		정성근 삼서면 영로동 1930-29 [주관축물제1동] 단층 675.97㎡ [공정지당법제6조특별복지기제와갈을 제시와 기구 111㎡]	공장			
		동소 1930-29 [주관축물제2동] 1층105㎡ 2층105.7㎡ [공정지당법제6조특별복지기제와갈을 제시와 기구 152㎡]	공장			
2024타경 3631	1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368-1 573㎡ [공정지당법제6조특별복지기제와갈을 제시와 기계기구 148.98㎡ [공정지당법제6조특별복지기제와갈을 제시와 기구 189.41㎡ [공정지당법제6조특별복지기제와갈을 제시와 기구 152㎡]	창고용지	371,315,000	371,315,000	창고시설
2024타경 66823	1	북구 중동로83번길 17-9 1층210.54㎡ 2~5층 202.77㎡ 제시와 보일러실등79.8㎡	숙박시설	1,259,836,140	1,259,836,140	
2024타경 69440	1	북구 신안동 137-4 333.3㎡	대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2-12 238㎡	대	140,002,400	140,002,400	일괄매각,목책1,3인정도와외경계불명정확한경계측량요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3-6 50㎡ [물건번호1:목책1,3남동측일부단인소유권인물부일부소재제외]	대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4타경 69730	1	나주시 상아4길22, 제1층 제107호 [빛가람동,스퀘어가든] 56.70㎡	오피스텔,상가등	395,000,000	395,000,000	
		나주시 상아길21, 제1층 제1호 [빛가람동,스퀘어가든] 56.7㎡	오피스텔,상가등	447,000,000	447,000,000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표자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신청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각이 취소될 경우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표자우선 매수신청가격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5. 1. 16.(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5. 1. 23.(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의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비추어 기일입찰표에 시간제한,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10천원)에 해당하는 공표금과 발행의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좌를 개설한 민사(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제외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종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격의 1% 이상을 포함한 사정용 최고가격인도 지정된 날의 3일경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금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미납시 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양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을 수할것이라고 하는 사항은 민권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있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정된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권등기신청을 하고 기거하고 있는 임차인이거나, 사할지주인등에 대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무리없는 민사 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결과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인신보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권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격인도 신청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이 재개됩니다.

⑦ 신변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변공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격인도 신청인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2025. 1. 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서